

입문

지혜의 실천 '반야경'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반야경/해탈스님 지음
반야경이란 단 한 개의 경전이 아니라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수많은 경전들의 총칭이다. 이들 수많은 대부(大富)의 반야경들 중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 평가 받는 것은 <광현승 반야경>.
이 책은 <광현승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 특히 <광현승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장편 지혜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보살·마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접근했다. 또 불생(不生)의 의미, 반야비밀의 무형성 등에 관한 문제까지 탐구하고, 반야비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출판사대 6,500원 (02)3443-4307



슈리폰다의 '참나' 찾기

■무엇이 깨달음인가/슈리 폰다 지음
그대는 생각하고 있는 나 무 위에 앉아 있다. 하지만 단 어해서 그대는 불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대는 잠자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인도의 수행자 슈리 폰다는 <무엇이 깨달음인가>에서 참나로 돌아올 때, 이것이 깨달음이고, 해방이고, 자유임을 말한다. 그리고 깨달음은 곧 마음의 고요이며, 마음의 고요는 실재와 실재 아닌 것을 구분하는 탐구와 집중, 명상 등 여타의 수행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풀이해 부록으로 달아 놓아 이해를 도왔다. 김영채 교수(경원대 심리학)가 옮겼다.
하남출판사 8,500원 (02)720-0311



금주의 추천도서

알기 쉬운 불교미술로의 여행

■알기쉬운 불교미술/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1600여 년. 그 외 더불어 불교미술도 장구한 역사를 이어 왔으며, 우리 나라 전통미술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서 널리 조성되고 봉안되어 오늘날에도 우리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리에 해박한 불자들이라도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그래서 현재 활동중인 불교미술 작가들로 구성된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들이 불교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인들의 불교미술에 대한

알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 책을 펴냈다.
사인과 불상, 불화의 의미, 법당과 부처님, 탑, 석조물, 법구 등에 대해 주요사찰과 국보급 문화재를 엄선. 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였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도면을 제시했으며, 명호도 알기 쉽게 표현했다.
다양한 불교미술품들의 교리적 배경과 조형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쉽게 구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불서출판 운주사 값 9,000원 (02)720-9372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松江企劃

내면의 울림 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ania!

명상말씀



찬불가



불교음악



법문

경전

독경

협·찬·사
OMNI RECORD
송강기획
불교음반 기획제작
불교 음악, 명불 가계 제작

·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 TEL: (02)745-6015
· FAX: (02)745-6017

에세이

마음 찾는 아름다운 단편들

■그 마음을 버치라/김재용 지음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생선을 튀겼던 새끼들에게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났던 콩에 서는 향내가 나는 법, 할 것치 삼독심이 비린내라면 맑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향내일 것이다.
과연 내게선 어떤 태도가 낱가를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명약광화.
그러나 알고 있어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 이 책이 그 의미를 있게 해준다. 삶에 대한 회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등 인생의 아픔은 누구나 겪는 일. 단풍이 아무런 고통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을까. 밝음의 세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단편이 단풍처럼 깔려 있다. 그 단풍의 주인은 바로 독자들.
영화 7,500원 (02)720-9372



삼승의 짧은 얘기 긴 감동

■방랑시적/재연스님 지음
"스님! 분가부는 왜 부르세요?" "못난 중생들이란 그저 상을 취하는 법이어서..." "못난 중생들 속에 분가부로 컴비셋을 감수하는 스님도 들어갑니까?" "되풀은 사미는 무엇 치켜들 큰스님의 흰 눈발에서 고양이의 송곳니를 본 후 묵묵히 산문을 나섰다. 자아의 방랑은 이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지공 위신과 허위로 가득찬 세대를 풍자한 이야기로 시작해 살았던 수도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의 순간들, 그리고 삶의 지혜를 서정적으로 풀어냈다. 길고 짧은 여러 이야기들의 감동이 긴 여운을 남긴다. 인도의 여러 성자를 직접 순례하며 느낀 것을 원시불교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한 것이 특이하다.
문학동네 6,500원 (02)765-6510



기타

존재의 빛을 보여준 달마대사

■달마대사의 선화(禪話)/리즈니쉬 지음
"그는 사람이기보다는 사자 같았다. 그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거렸다. 그에게는 고타마 붓다와 같은 우아함이 없었다. 그는 거칠게 날뛰었다. 그 참이 바로 그의 아름다움이다."
리즈니쉬는 달마대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달마대사의 메시지는 붓다와 같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달마대사와 그 제자들의 선문답. 질문자는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이 들고 있는 불꽃에 달마대사가 기름을 부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기름을 부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배를 짚는 웃음소리로 하여 불꽃에 찬물을 끼얹는다. 달마대사가 거르키는 것은 오직 내면에서 떠오르는 존재의 빛.
권율출판사 5,000원 (02)720-8434



스승이 준 가르침 함께 나누기

■뒤는 마음 밝은 마음/김재용 지음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스승은 있다. 부처님을 사봉하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던 어찌 잊을 수 없다는 한 마디 말로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었는가. 자라는 그 은혜를, 그 가르침의 심오함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스승인 백성목 한 통목대 총장이 평소 법문한 것을 모으고 여기에 자신의 소감을 덧붙인 단편 모음집. 현대에 진실하고 맑은 마음을 되찾아, 책을 읽어 읽고 함께 더불어 가는 길을 밝혀라.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 부처님께 바쳐라.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주고 받았다. 마치 뱀들이 마음을 밝아서 주고 받았듯이.
영화 6,000원 (02)720-9372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베스트

재미·감동 줄 금강경 체험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윤윤순 지음.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애와 화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생활 속의 지침서다. 자신의 체험과 경의 내용에 알맞는 실감나는 다양한 사례, 그리고 상세한 설명이 한 데 어우러져 재미와 감동을 준다.
"내용이 쉬우면서도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어,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금강경을 독송해보고 싶은 마음이 날 것"이라는 태고종 종장 보성스님의 추천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저자 자신이 시련과 허무를 딛고 금강경 속에서 찾은 삶의 진실과, 80년 인생경력이 녹여있기 때문이다.
차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신우당 8,800원 (02)277-5955



죽음으로 본 삶의 해답

■남산이 북산을 보여 줬네/맹원자 지음
역사 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은 떠났다. 거기에서 세네 카와 네로, 광혜공과 마지막 왕제 부의, 소크라테스와 공시일, 루브와 갈사트,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톨스토이와 스탈린 등 이렇듯 들어도 끝날 알 수 없는 역사적 인물 1백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되찾는다. 죽음기행의 종착역은 다음 아닌 열정적인 삶을 이 책은 보여준다.
삶을 가장 확실히 헤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음이 아닌 죽음. 남은 생을 생각해 보라. 눈물이 나지 않는가.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요즘같이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더불어 느낄 수 있어 금강경화다.
세존출판사 7,000원 (02)3462-2277



선지식이 남긴 살아있는 교훈

■스님의 맨발/한승원 지음
"쌀 한 자루를 잃어준 어린 상좌가 문득 어느 집에 들어가 불꽃이 불고 나오고는 아나에게 불꽃 입맞춤을 한 스님의 뒤를 따라 도망쳤다. 꽃이오는 동네사람들의 시성권을 벗어난 스님과 상좌의 대화. "어찌도 무거우나!" "무거운지 어찌지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허스님과 그의 제자 만공스님의 대화 속에 '일체유심조'의 교훈이 흐른다. 휴정 원효 보우 만해 한암 한영 성철스님 등 불교계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선승 스물다섯명의 기이한 행적과 사상을 유려한 필치로 풀어냈다. 고승들의 선지식을 찾아 삶과 죽음, 대륙과 해탈에 관한 깨달음의 문을 두드린다.
문학동네 6,500원 (02)765-6510



쟁점 통해 불교사상 흐름 정리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이호걸 외 지음
최근 불교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담아 논쟁과 비판, 대립과 갈등을 통한 불교철학의 발전상을 보여 주는 연구서.
불교는 인도도속사상과의 논쟁을 비롯해 중국에 왔어오면서 도가·유가사상과의 조화와 반목, 한국에 들어와서는 유학과의 반목 등 수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대승불교 내에서의 중관학과 유학과의 논쟁을 비롯해 교종과 선종간의 갈등과 조화 등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불교사상의 시대적 흐름이나 특징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불교의 쟁점들'을 통해 불교의 현대적 직을 방인도 모색했다.
예문서원 10,000원 (02)925-5914



산사생활의 멋과 여유담아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나무불 스님 지음
경북 성주군에 있는 천상산 김성도량에서 '소 락이'는 일을 배우며 이웃한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사는 나무불스님(법명 지혜)이 생활의 단상들을 모은 산문집.
청정한 삶에 안온이 있고, 마음을 비우면 선악이 따로 없음을 음조리면서 청빈하고 산하게 살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부질없는 욕망을 놓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길이 읽은을 준다. '세상을 떠난 무욕의 삶, 무위자연의 탈속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책. 산문집이지만 시집에 가깝다. 깊은 산사의 자연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유(自由)하며 살아가는 스님의 모습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 동안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한다.
민족사 6,000원 (02)732-2403

